

■ 2026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아동·청소년문학)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아동·청소년문학
- 회의일시 : 2026년 1월 23일(금), 16: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유진, 김은영, 박효미, 배다인, 안상학 심의위원

2025년 시작해 올해로 2년 차인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은 활발히 창작 활동하는 작가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창작지원금에서 나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 플랫폼(문학광장, 문학주간, 문학창작공간)을 연계 지원하여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취지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은 최근 10년 내 공공 분야 작품집 발간 지원사업 선정 이력, 주요 문학상 수상 이력, 단행본 2권 이상 출간 이력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작 전반의 우수성에 대한 기준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심의대상 111건 거의 전부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심의위원회는 더욱 심의에 숙고해야 하였습니다. 이미 공시된 심의기준에 의거해 사업주체역량(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40%), 문학 생태계 기여도(10%)에 가중치를 두고 각 기준별 세부 평가 기준으로 심의했으며 사전 온라인 채점과 서류 심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5인의 심의위원이 온라인 개별 채점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총 16건(최종 선정의 2배수)을 1차 선정해 최종 선정 후보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사업의 취지가 기존 창작지원금 사업의 취지를 이어가면서도 확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의대상의 최근 10년간 문학적 성과와 예술적 완성도를 기반으로 향후 활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 기반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작품의 성취도와 창작 관련 활동의 활발함이 반드시 비례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두 개의 심의기준 모두를 월등히 충족시키는 심의대상이 다수였고, 이들이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상당수 심의대상이 창작 뿐만 아니라 창작 관련 활동까지 우수한 이유는 아동·청소년문학의 경우 각급 학교, 도서관 등에서 독자와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편이어서 그러하다고 분석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기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한 플랫폼에 기반해 아동·청소년문학이 보다 확장되고, 보다 공공적인 성격으로 독자와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예술적 성취를 이룬 작가가 문학 현장에서 독자와 소통하는 자리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이 작가에게는 창작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문화 예술 향유자에게는 아동·청소년문학 고유의 문학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심의구조와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문학 분야의 심의는 운문 장르(동시, 청소년시)와 산문 장르(동화, 청소년소설)를 구분해 심의되기도 하고, 두 장르가 하나의 분야로 심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문학

은 시, 소설, 희곡, 평론과 같은 개별 장르의 하나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 문학은 어린이 청소년 독자가 읽는 문학 전체이고 동시(청소년시), 동화(청소년소설), 동극(청소년극), 아동청소년문학평론의 개별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문학청소년 분야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심의하는 일은 시와 소설을 하나의 분야로 보고 동일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의 전문성을 충족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선정 건수의 배분상 대개 운문 장르 선정이 산문 장르 선정의 절반 이하로 주어지게 되므로 두 장르의 창작을 보다 적절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심의구조를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위원 일동